

美 연구소 “北, 핵무기 13~21개 보유 추정”

지난해부터 4~6개 늘려

영변 핵연료 재처리 작업 확인

완전 가동시 매년 2개 생산 가능

북한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월 동안 보유 핵무기 수를 4~6개 더 늘렸을 것이라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추정했다.

이 연구기관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원료물질을 늘려 온 북한이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SIS는 2014년 말 기준으로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를 10~16개로 제시해 왔다.

ISIS는 “2014년 말부터 북한이 핵무기 5.1개에서 9개 분량 사이의 핵물질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보이고 (가공 과정에서의 손실 등을 감안해) 그중 70%가 실제



핵무기로 사용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북한의 핵무기 수가 4~6개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월 감행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1개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는 13~21개로 추정된다고 ISIS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분이 대부분 농축우라늄을 재료로 삼았다고 지적한 이 연구기관은 북한에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제2 우라늄 농축시설에서의 생산분을 이

번 보고서에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의 상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기관은 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핵물질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작업을 나섰음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는 직접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고 5MW급 원자로가 전면 가동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체한 ISIS는 “플루토늄 분리와 관련된 간접적인 징후들”이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꾸준히 나타나 왔다고 설명했다.

ISIS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들어 영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고, 이런 지적들은 지난 4월부터 더 자주 제기돼 왔다.

지난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재가동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 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D-7 브렉시트 막바지 총공세

(Brexit·영국의 EU 탈퇴)

노동당 지도부 막판 표심 잡기

탈퇴 여론, 잔류에 6%P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열릴 앞으로 다가오자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브렉시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간 캠페인에 다소 미온적이던 제리미 코빈 대표가 뒤늦게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자 표심 잡기에 뛰어든 것이다.



코빈 노동당 대표

코빈 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지도부 다수가 14일(현지시간) 런던 중심가 소재 영국 최대 노조단체인 TUC 본부에서 몇몇 노조단체 대표 등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코빈은 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과 나이절 파라지 영국독립당 대

표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코빈은 “EU 탈퇴는 국민건강서비스(NHS)를 위협에 빠뜨리고 NHS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이라며 “나이절 파라지와 보리스 존슨은 자신들의 진짜 의제를 감추려고 NHS에 대한 걱정을 활용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고 불아붙였다.

그는 “우리를 지지하는 모두가 이점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23일 EU 잔류에 한 표를 던지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존슨 등은 영국이 EU에 매년 내는 분

담금 178억파운드(약 30조원)를 영국의 학교와 NHS, 과학기술 투자 등에 투입하면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면서도 그동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왔던 코빈 대표가 전면전에 나선 것은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 앞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지지 운동에는 보수당 수장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앞장서 왔으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브렉시트 찬성 측의 공세에 흔들리는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동당과 노조가 나선 것이다.

캐머런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지지 운동에 펼쳐 온 노동당 소속의 사디크 칸 런던 시장, 노동당 출신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총력전을 시작했다.

이날 가디언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ICM가 실시한 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53%, 반대가 47%로 6% 포인트 앞섰다. 같은 날 유고브로라인 조사에서는 찬성이 43%로 반대보다 1% 포인트 많

아 여전히 치열한 접전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나이절 파라지 영국 독립당 대표는 반대론자들이 불리한 여론을 뒤집으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존슨 전 시장은 이날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불과 몇 달 전에 캐머런

총리가 우리가 EU 밖에서 더 번영할 것이라고 제일 먼저 말했다”며 “논쟁에서 질 때면 화를 내고 때론 위협적으로 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올랜드 참사’ 용의자 테러 클럽 수년간 다녀

범행 동기 수사 휴대폰이 핵심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된 ‘올랜드 참사’의 테러범 오마르 마틴(29·사진)이 공란의 살육 현장인 게이 나이트클럽 ‘펠스’를 수년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 동성애자(게이)를 위한 만남 애플리케이션(앱)도 사용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마틴의 과거 게이 클럽 출입 기록을 조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언론과 수사 당국은 마틴이 남자끼리 일 맞추는 것에 분노했다던 마틴 아버지의 증언과 범행 직전 수니파 급진주의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서약한 사실, IS 추종의심자로 이전에도 FBI의 조사를 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성 소수자를 향한 증오 범죄 또는 국의 테러 단체와 연계한 자생적 테러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마틴이 게이 클럽을 정기적으로 드나든 ‘면식범’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펠스 방문이 범행을 위한 계획적 답사였는지, 자신의 욕구 분출을 위한 일반적인 유희였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올랜드 센티널,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마틴을 펠스에서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

졌다. 먼저 지역 일간지 올랜드 센티널은 펠스에서 마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최소 4명은 된다고 보도했다. 타이 스미스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펠스에서 종종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마틴의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스미스는 “마틴이 엄격한 아버지 탓에 집과 가족들이 있는 곳에선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덧붙였고, 켈런은 “마틴이 최소 3년간 펠스를 드나들었다”고 추정했다.

마틴을 제법 알던 두 커플은 그가 칼을 집어 들어 다른 클럽 방문객을 위협한 것을 보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NPR은 마틴의 범행 동기가 안갯속에서 파묻혔다면서 “그는 게이인지 양성애자인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사람이며, 다른 범행 동기를 지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수사 당국은 여러 정황이 혼재한 상황이라 마틴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마틴이 게이라는 학교 동창과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인디언 리버 지역대학(커뮤니티 칼리지)의 친구인 한 남성은 지역 신문 팜비치포스트에 마틴과 “몇몇 게이 바를 함께 갔다”며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뿐 그를 게이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마틴의 전 아내 시도라 유수피는 CNN 머니 인터뷰에서 “마틴이 게이냐”는 물음에 몇 초간 침묵한 뒤 “나는 모른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마틴이 현장에서 사살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가 연계 세력, 배후, 범행 동기 등을 밝힐 핵심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그날 참사 떠올리면... 미국 클럽 총기난사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페이스스 카터(20·오른쪽)가 치료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 병원에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말하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135일 행군’ 마친 힐러리의 미소

워싱턴DC 마지막 경선 승리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사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라이머리를 승리하며 135일간 펼쳐진 경선레이스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보다 일주일 앞서 경선레이스를 마친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나란히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로 공식으로 확정되고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특히 두 후보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플로리다 주 올랜드 총격 테러를 계기로, 대선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테러리즘’ 등 국가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6일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매직넘버’인 대의원 과반인 2383명을 확보한 데 이어 이날날인 7일 6개 주 경선을 승리하고 자

신이 ‘대선 후보’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대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아직 ‘힐러리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채 7월 전당대회까지 치르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이날 워싱턴DC 프라이머리를 마친 뒤 회동해 본선 상대인 트럼프를 꺾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회동을 계기로 샌더스 의원이 금명간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힐러리 지지’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경 **MG 서양새마을금고 주유소 오픈** **축**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